



2대리구 정평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2. 04. 10. (다해) 제2316호

**입당식복음** 루카 19,28-40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O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루카 22,14-23,56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희생의 가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센터장 | 박상준 가브리엘 신부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로 불리는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어릴 적 뒤러는 화가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스라는 소년을 만나 두 사람은 이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정식으로 그림 수업을 받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한 끝에 서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의 학비를 대고, 이후 그림 공부를 마친 친구가 다시 학비를 대준 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한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뒤러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뒤러는 금의환향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도와준 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고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지고 뒤틀려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뒤러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러의 앞날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이 기도를 우연히 듣게 된 뒤러가 눈물을 흘리며 그 친구의 숭고한 손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했는데, 그것이 뒤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며 성지가지기를 흔들며 자기의 겼옷까지 갈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입성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수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 길이 우리를 구원어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뒤러의 이야기에서 친구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뒤러의 재주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은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희생했기에 그 희생은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의 재주를 살리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손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뒤러가 친구의 그 숭고한 손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도 성지가지기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이 ‘맞아들임’은,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는 합당한 ‘맞아들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다윗 II (1사무 16장-1열왕 2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하느님의 ‘기름부음받은이’(히브리어 ‘메시아’) 성왕聖王 다윗의 인생에도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세월은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을 사랑해 온 것은, 그가 처음부터 완벽하기만 한 초인超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혹에 빠져 죄짓고 가슴을 치기도 했던 범인凡人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젊은 시절의 다윗은, 혈안이 되어 자신을 죽이려던 정적政敵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고(1사무 24; 26장), 사울과 그의 장수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2사무 1,1-12; 3,28-39)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죄를 물었으며(2사무 1,13-16; 1열왕 2,5-6), 사울의 손자 므피보셋을 곁에 두어 보호하는 등(2사무 9,1-13) 주위에 질게 드리워진 폭력의 사슬을 끊으려 그토록 애썼던 정의롭고 온유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죄와 유혹에 빠져 스스로 폭력을 자행하는 이가 된 것은, 오히려 필리스티아와 암몬과 아람 등 주변국들을 복속시킨 후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이 찾아든 때’였지요.

다윗이 당시 임금의 최우선 임무였던 출전出戰을 사령관 요압에게 미루고, 선두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기보다 왕궁에 머물며 편안한 일상에 안주했던 일은(2사무 10,7; 11,1)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악마의 일터이다.”라는 서양 속담처럼, 영육의 나태함은 인간을 쉽게 유혹으로 이끄는 법이지요.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다윗에게(2사무 11,1-27) 예언자 나탄은 하느님의 엄중한 징벌을 예고했고(2사무 12,10-12), 과연 그 예언대로 다윗 가문에는 참혹한 일들이 닥쳤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를 범하고(2사무 13,1-22)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패륜을 저질렀으며(2사무 16,20-22), 자식들의 죽음과 서로 간 살육이 끊이지 않았지요

(2사무 12,15-18; 13,23-37; 18,14-15; 1열왕 2,13-25). 성경 저자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다윗 왕실의 역사를 그가 지은 죄에 따른 인과응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며 참회했을 때 분명 하느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셨는데(2사무 12,13), 앞서 예고되었던 징벌은 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대로 주어졌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이후 이어지는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회개자’로서 자신 또한 원수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다윗은 소중한 말아들 압논을 죽이고 반란까지 일으킨 압살롬을 용서했고(2사무 14,33; 17,5; 19,1-5), 그 반란 때문에 오른 피난길에서 돌팔매질하며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에게도 관용을 베풀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었지요(2사무 16,11-12).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는 말 한마디로 치유와 용서의 과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지키기보다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길 택했던 그 ‘회개와 보속의 세월’을 거쳐서야 비로소 다윗은 참 성인聖人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과 같은 성왕에게도,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쏟아지는 시기’와 쓰디쓴 ‘단련과 훈육의 시기’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였음을 되새겨봅니다. 혹여 힘겨운 시간이 이어지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난 듯한 고독을 느낀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버려두셨다거나 그분과 나쁜 관계에 있다고 쉽게 판단하며 용기를 잃어선 안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느님의 깊은 은총이 나를 비추고 있는 특별한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며, 성왕 다윗처럼 쉽 없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필리**



## 교황, “전쟁이 인류를 역사에서 지우기 전에 전쟁을 폐지합시다”

2022년 3월 27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새롭게 호소했다. 지난 3월 25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한 교황은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교황은 3월 27일 사순 제4주일 삼중기도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패배를 의미하는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거부해야 합니다. 전쟁은 부모가 자녀를 장사 지내고, 일면식도 없는 형제자매 같은 사람들을 죽이며, 힘 있는 이들이 결정하고 가난한 이들이 죽어 나가는 자리입니다.”

“전쟁은 한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어린이 2명 중 1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이는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자 우리 중 가장 작고 무고한 이들에게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야만성입니다. 잔인하고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의 분노를 내일의 다짐으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과거처럼 지나 보낸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죄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멸의 위험에 직면한



폭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크라실리브카 마을

인류가 전쟁을 폐지하고, 전쟁이 인류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전쟁을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교황은 평화를 위한 호소를 기도로 연결시켰다. “이를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헌신하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전쟁이 모든 이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해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지치지 말고 평화의 모후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인류를,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봉헌했던 그분께 말입니다. 이 봉헌 기도에 많은 이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 루르드 성모님께 바친 허원

### 7월 1일 토요일

아직까지 최악한 투르뇌(Tourneux, 呂東宣) 신부가 마산포(馬山浦)나 대구로 휴양하러 갈 것이다.

### 7월 2일 일요일 성모왕고침례(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현재는 5월 31일)

대구에 와서 첫 번째로 맞는 일요일이다. 나는 루르드의 성모에게 “만약 교구를 분할할 때 받은 교구 기금에 의지하지 않고 첫째 주교관을 건설하고, 둘째 신학교를 건설하고, 셋째 주교좌성당을 증축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주교관을 위해 예정된 대지 안의 가장 훌륭한 장소에 루르드 동굴과 가능한 한 유사한 동굴을 세워 드리겠다.”라고 공식으로 서약했다. 이 서약서는 내가 직접 세 개의 사본을 만들었고, 여기에 나와 참석한 선교사들, 그리고 유지 교우들이 서명했다. 사본 하나는 교구 고문서고에 보관시켰고, 두 번째 사본은 루르드의 성모상 아래인 성당의 중앙 제단 뒤에 놓았으며, 세 번째 사본은 루르드로 보냈다. 또 그 문서를 복사해 모든 선교사들에게 보냈다.

### 7월 3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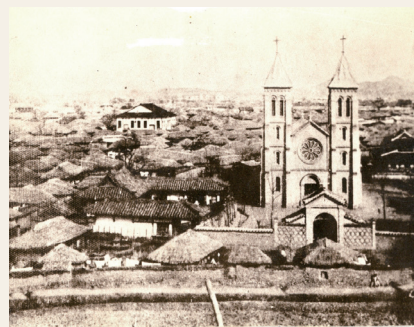
로베르 신부는 오늘 저녁에 급행열차 편으로 떠났는데 떠나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소세 신부가 대성당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새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가실(佳室)도 함께 맡아 볼 것이지만, 가실은 공소가 될 것이다.

### 7월 4일 화요일

당가(當家, 경리담당) 신부에 의해 편집되어 매월 5일과 20일에 발행되는 <대구교구통신문>(Bulletin de la mission de Taikou) 제 1호가 오늘 인쇄되었다.

### 7월 5일 수요일

대구 교우들의 우두머리인 서 아오스딩[徐相墾]이 주교관과 수녀원 부지로 두 곳의 아주 좋은 대지를 약속했다.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 측량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이 격식대로 해결되기 전에는 그곳에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 1911년 드망즈 주교 부임 당시  
계산성당과 임시 주교관

### 7월 6일 목요일

장소에 비해 검소하지만 어쨌든 나는 내 방의 설비를 거의 끝냈다.

### 7월 9일 일요일

나가사키(長崎)에서 보낸 로베르 신부의 편지가 오늘 도착했다. 그는 즐거운 여행을 했고, 상하이(上海)로 가기 위해 이 달 7일에 나가사키를 떠날 것이다.

## 54. 사랑의 결실 ⑥

“노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사는 집에서 존엄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해 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와 노인이 새롭게 서로를 끌어안는 넘치는 기쁨으로 ‘버리는’ 문화에 맞서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은사”로 우리가 “세대의 연속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손주에게 확실히 물려주는 이는 조부모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결점입니다. 가정의 살아있는 기억인 조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가정은 붕괴된 가정입니다. 반면에 이를 기억하는 가정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191-193항)



# 가톨릭 금빛신문 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2022년 4월 17일 주님부활대축일  
가정 월간신문으로 새롭게 뵈겠습니다.

- 가정복음화국 -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단식을 통해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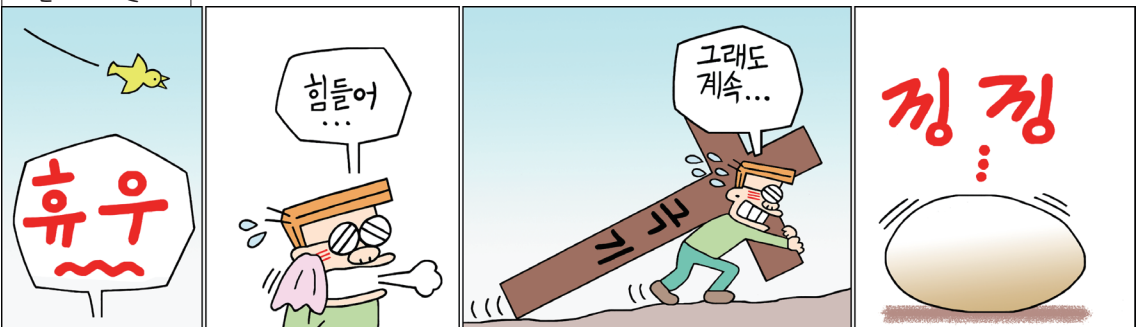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 말씀의 해 안내지 65호 정답

1.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니네베가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2.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레렘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3. 성실함 4. ④ ① ⑤ ②

끝까지 잘...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                 |                      |                |                      |
|-----------------|----------------------|----------------|----------------------|
|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 4월 11일(월) 10:00 황성성당 |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4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 4월 12일(화) 11:30 계산성당 |
|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1일(월) 11:00 범어성당 |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 4월 13일(수) 10:00 평화성당 |
|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1일(월) 11:00 봉곡성당 | -              | -                    |

### 수도회 성소 | 피정

####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4.16(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4.24(일) 11:00~16:00

장소: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시간: 수시 / 장소: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성소실

문의: vocation.sj@gmail.com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 빠스카 성삼일 전례피정

일자: 4.14(목)~17(부활대축일)

비용: 21만원 (3박 4일)

문의: (010)7103-3425

‘베네딕도 영성관’을 검색해주세요

####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료 대피정

주제: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없이 기도하자

날짜: 5.13~15 / 5.20~22 / 5.27~29

장소: 성모술숲마을(청도군 송내길166)

인원: 50명씩 / 문의: (010)5613-0166

#### 교구 외 | 기타 알림

#### ENTS(영어성경) on ZOOM(ents.or.kr)

일시: 4.19~7.5(매주 화) 19:00~20:30

주제: 루카 복음

강사: 안 페트릭 신부

수강료: 5만원

문의: 성골로반외방선교회, (02)953-0613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전인병원 조리원 채용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77

자격: 경력 무관, 해당직 유경험자 우대

문의: 670-5881

####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영 (아네스)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대림대 병원 특판 **일일매트** **한한의료기** **온수매트**  
소금염착색기 **게르마늄옥매트** **대구총판**

**파크골프**

초보자 모집, 레슨 / 골프채세트 - 교우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종단지도 45 천자관 1 239오

##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신순균(바오로) 신부  
1948년 4월 10일
- 이수승(베드로) 신부  
2020년 4월 12일

## 교구 | 대리구 알림

### 4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4.24(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1.2.3.5대리구  
중·고등부, 4대리구 고등부) /  
포항 죽도성당(4대리구 중등부)

문의: 성소국, 250-3071

###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일시: 5.11(수)~12(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4.28(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 충효성당 사무직원 채용

자격: PC, 엑셀 능통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4.30(토)

문의: (010)2696-7200

###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종화(엘리시오),

임영숙(아네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바오로딸 영성 프로그램

기도훈련 8가:

4.22 (매주 금 14:00 6주간)

내 영혼의 글쓰기:

5.12 (매주 목 14:00 8주간)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 바틀로센터 참신나 기도 모임

일시: 4.22(금) 19:00~20:30

매달 셋째주 금요일

(변경될 수 있음)

대상: 기도하고 싶은 신자 누구나

문의: 783-9817 / (010)2693-9817

###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신앙여정,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8차: 4.22(금)~24(일)

389차: 5.13(금)~1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 군중후원회 창립50주년 피정 및

### 감사 미사

일시: 5.5(목) 13: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미사주례: 조환길(태대오) 대주교

초청강사: 김용열(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글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학박사 | 최희만(레오), 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코리아알트만**  
39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